



이순신대학교 개통 이순신대학교가 포함된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개통식이 7일 오후 여수시 모도동 모도교차로에서 박종영 전남지사와 김홍석 여수시장, 이성용 광양시장, 우윤근·주승용·김선동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도로 개통으로 여수와 광양 간 이동거리가 60km에서 10km로 줄어 물류비 절감이 기대된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 지자체 공금횡령 엄단 칼 빼들었다

## 영암·무안군 관련 규칙 마련...과실 유무 불문 중징계 처분

전남지역 시·군들이 일정 금액이상의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을 무조건 중징계 처분하기로 하는 등 공금횡령에 칼을 빼들었다. 영암군은 7일 공금횡령 등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한 '영암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고진규칙에는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의 경우 그 금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비위 정도, 고의·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징계 이상의 중징계를 하도록 했다. 개정 전 규칙에는 횡령 금액 등을 명시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도 했다. 군은 강화한 기준 마련으로 공직기강, 회계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안군도 공금 횡령과 유용, 업무상 배임 액수가 30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중징계 처분을 하기로 했다. 군은 공직기강과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을 마련, 12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입법에 고안에 따르면 공금 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금액에 징계양정 기준을 도입, 300만원 이상이면 징계 요구권자(군수)는 비위 정도,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그동안 공금 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의 징계기준은 4단계로 ▲비위 정도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파면)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파면 또는 해임) ▲비위 정도가 심

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해임 또는 강등)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정직 또는 감봉) 등으로 구분했다. 중징계는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이며 경징계는 감봉과 견책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에서 공직자의 회계비리 등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적지 않아 이번에 엄격한 자세를 마련한 것"이라며 "규칙 개정과 함께 공무원 부조리 신고장도 내실있게 운영해 깨끗한 공직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영암=문병선기자 moon@ /무안=김민준기자 jun@

## 나주 직업훈련원 개강

### 110명...맞춤형 인력 양성

나주직업훈련원이 지난 5일 개강했다. 나주시는 6일 "지난 5일 나주직업훈련원에서 임성훈 나주시장과 110명의 훈련원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강식을 갖고 6월까지 본격 훈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전국 지역일자리대책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 우수사례로 선정된데 이어 고용노동부 지역맞춤형인력 양성사업 공모사업을 통해 4억7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다. 시는 투자유치 및 연관기업에 사전연련을 통해 구인현황을 파악하고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110명으로 늘려 기업의 맞춤형 인력 수급에 대응할 계획이다. /나주=손영철기자 ycsn@

# 광양시장 '무원칙 인사' 도마위에

## 기술직·여성 확대 독단적 승진인사 단행 직원들 반발

3선인 이상용 광양시장의 '무원칙 인사 시스템'이 도마위에 올랐다. 공직사회에서 인사와 관련된 각종 설들이 난무하면서 조직 분위기도 크게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광양시는 지난 6일 정기인사를 단행하면서 서기관 2명과 사무관 6명, 팀장급 10명 등 시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하지만 인사 과정에서 이 시장은 실국장 및 부시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승진자를 발탁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간부들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려는 모양새는 갖췄지만 요석행위로 그치고 사실상 시장이 승진자를

모두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총무과장(서기관), 사무직사회에서 인사와 관련된 각종 설들이 난무하면서 조직 분위기도 크게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광양시는 지난 6일 정기인사를 단행하면서 서기관 2명과 사무관 6명, 팀장급 10명 등 시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하지만 인사 과정에서 이 시장은 실국장 및 부시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승진자를 발탁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간부들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려는 모양새는 갖췄지만 요석행위로 그치고 사실상 시장이 승진자를

식 인사로 유능한 인재의 승진 발탁은 늘 좁은 문이었다"며 "이 시장의 인사행태는 시 발전과 창의적 행정추진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기술직이나 공무원노조 간부 확대 등이 반복되면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4월 시공무원노조가 시 전체 공무원 867명을 대상으로 인사제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참여자 가운데 70%가 인사 제도를 신뢰하지 않거나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하기도 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 재경 완도군향우회 훈훈한 애향심

#### 해조류박람회 조직위에 겨울 점퍼 등 54벌 기증

눈코 뜰새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완도해조류박람회조직위 사무국에 지난달 30일 특별한 택배상자 2개가 도착했다. 박스에는 고급스런 겨울용 점퍼와 아웃도어 근무복 54벌이 들어있었다. (사진)

택배 발송인은 김행만 재경완도군향우회장과 양한창 재경약산향우회장. 오는 2014년 해조류박람회 준비를 위해 뛰고 있는 조직위 사무국 직원들을 위해 근무복을 기증한 것이다. 이번 기증은 최근 고향을 찾은 김행만 회장이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사무실에서 박람회 성공을 위해 뛰고 있는 사무국 직원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접하고 양한창 회장에 제안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해조류박람회 조직위에 겨울 점퍼 등 54벌 기증

김종식 완도군수(완도해조류박람회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는 "해조류박람회에 대한 30만 향우들의 관심과 기대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다"며 "해조류 박람회를 기필코 성공적으로 개최해 큰 뜻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완도군 향우회연합회에서는 2014년을 30만 출향인 고향방문의 해로 정하여 향우회 차원에서 해조류박람회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는 2014년 4월11일부터 5월11일까지 '바다속 인류의 미래, 해조류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완도해변공원일원에서 31일간 개최된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 순창군 친환경 벼 재배면적 확대

### 2015년까지 500ha로...올해만 130ha 확보

순창군이 오는 2015년까지 친환경 벼 재배 면적을 500ha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에만 130ha의 친환경 벼 재배면적을 확보할 예정이다. 군은 7일 "올해를 친환경농업 실천의 원년으로 삼아 친환경농업과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나서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 참여농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순창군의 친환경인증 벼 재배면적은 120ha로, 올해 130ha와 내년엔 100ha, 2015년에 150ha를 조성, 2015년까지 500ha의 친환경 벼 재배면적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첫해인 올해는 친환경농업 벼 집단재배 시범단지 1개 단지를 중심으로 13개소 130ha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17개 희망단지 260여 농가를 대상으로 컨설팅 업체를 통해 지난해 교육을 실시했다. 친환경농업 벼 재배에 따른 재배기술과 관로 문제, 인증 절차 등과 관련된 농가 교육을 실시, 친환경 재배 동참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당초 130ha의 계획 면적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군은 전망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친환경 집단재배 시범단지에 대해서는 우렁이종래, 친환경벼리 등 친환경 자체 구입비로 1000㎡당 12만원을 지원한다"면서 "또 친환경 농산물 인증 시 시중가격보다 가마당 최고 5000원 높게 전량을 매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 전북

## 고창전통시장 주차장 고객편의시설 준공

### 2013. 2. 6(수) 16:00



고창군은 6일 이강수 군수, 박래환 군의회 의장, 오윤호·임동규 도의원, 유관기관 단체장, 5일시장 상인회 임원 및 지역주민 등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전통시장 고객편의시설 준공식을 가졌다. 2012년 6월 착공한 고객편의시설은 연면적 315㎡ 규모의 2층 건물로 1층에는 버스 대합실과 관리실, 2층은 체육증진실 및 교육관을 갖추고 있다. /고창=강철수기자 knews@

##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시험장 부지

### 남원시, 무상환원 촉구 서명운동

남원시가 운봉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시험장 부지의 무상환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는 이를 위해 시민 서명운동을 물론 명문 쌀가게에도 주력하고 있다. 시는 7일 "가축유전자원시험장 부지가 허브밸리와 맞붙어 있는 등 지리산권 발전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애환이 서려있는 곳으로 무상환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지는 한·호주 면양 연구 국제사업 수행을 위해 지난 71년 3.3㎡(광당)에 50~70원대의 저가로 정부가 매입한 바 있다. 시는 지난 75년 한·호주 면양시험목장 국제사업이 완료된 뒤 환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시는 가축유전자원시험장 부지 활용방안 학술용역을 이달 내 발주하기로 하는 등 대처에 나섰다. 학술용역을 토대로 지리산 허브밸리, 지리산 둘레길, 국악의 성지 등 주변부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연계해 시너지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사업인 '지리산 힐링거점 조성사업'과 연계해 동부권 공동발전도 도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가축유전자원시험장 부지는 모두 221ha로, 54동의 건물에 28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6년까지 경남 함양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 전주시-완주군 '통합' 빨라진다

## 주민공청회 마무리 해당 자치단체장에 통합 권고

### 주민투표·의견청취 등 모든 절차 6월까지 끝내야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 찬반 의견 듣는 주민공청회가 지난 6일 마무리에 따라 정부의 통합 추진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전주시는 7일 "이르면 다음달 행정안전부의 해당 지자체 단체장 통합 권고에 이어 주민투표를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 통합합치방자치단체 '전주시'가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은 지난해 4월 전북도지사, 전주시장, 완주군수가 이에 전격 합의, 공동으로 정부에 통합을 공식 건의하면서 표면화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두 달 뒤인 지난해 6월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통합 방안을 마련했다. 이어 지난달 30일 완주군에서, 이달 6일 전주시에서 각각 주민공청회를 실시했으며, 정부는 이르면 3월, 늦어도 4월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통합을 권고할 것으로 보인다. 권고는 의회의 의견 청취(의결)나 주민투표를 의미한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전주의 통합 찬성률이 89.4%에 달한 점을 감안하면 정부는 전주시에 주민투표 대신

의회의 의견 청취 방식을 권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완주는 사정이 다르다. 같은 여론조사에서 찬성률이 52.2%로 찬반이 팽팽한데 완주군의회가 통합반대특위 구성을 추진하는 등 반대가 만만찮다. 따라서 정부는 완주군에 주민투표를 하도록 권고할 것으로 보인다. 의견청취나 주민투표 등은 모두 6월까지 해야 한다. 전주시와 완주 모두 통합에 찬성하면 지역 단체장과 의회가 추천하는 인사들로 '통합공동추진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다. 그러면 정부와 국회는 2014년 3월까지 통합 자치단체 설립을 개정하고 같은 해 7월1일 통합 지방자치단체인 '전주시'가 공식 출범한다. /전주=강철수기자 knews@

## 단신

## 군산여성단체협, 한국GM과 우리 차 사주기 협약

군산여성단체협의회(회장 곽미자)는 7일 한국GM 군산공장(본부장 김선홍)과 우리 차 사주기 협약을 체결하고 군산 지역 경제와 기업 살리기 운동에 동참했다. 한국GM군산공장 홍보관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은 '고객이 선택하는 일등공장 만들기' 일환으로 이뤄졌다. /군산=박금식기자·전북취재본부장

이날 행사에서는 협약식은 물론 여성단체와 영업사원간의 1대1 결연식도 진행했다. 곽미자 여성단체협의회장은 "협약식을 계기로 앞으로 지역의 상생을 위해 여성들이 힘을 모아 지역민에게 다각적인 홍보를 펼쳐며 기관 이미지 향상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식기자·전북취재본부장

## 순창군, 주거환경개선 사업 100억 투입

순창군이 올해 지난해보다 47억이 증액된 100여억원을 투입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펼친다. 7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643가구에 52억 8600만원이 투입됐으며, 올해는 99억 49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개발사업과 지방개발사업, 빈집정비사업,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등 4개 분야로 추진되고 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 한돈 전북도협의회, 돼지고기 6.4t 복지시설 등 전달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 전북도협의회(회장 이영권)가 민중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영세민들을 위해 7일 오전 송하진 전주시장을 방문해 도내에서 생산한 돼지고기를 전달했다. 이번엔 전달된 물품은 불고기용 돼지고기 6.4t(5120만원 상당)으로, 사회복지 생활시설 104개소, 무료 경로

식당 12개소, 지역아동센터 등 모두 180개소에 배분될 예정이다. 송하진 전주시장은 "사료값 인상 등 축산업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축산농가의 따뜻한 마음이 시민들에게 전달될 것"이라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전주=강철수기자 knews@

## 남원시, 설 연휴 환경오염 예방 특별단속

남원시에서는 오는 15일까지 환경오염배출시설 및 요전 상수원 상류 하천에 대해 설 연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환경오염사고 예방과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악성 다량폐수 배출업소, 중점관리업소, 취약지역에 위치한 환경오염 사

고우려업소 등을 대상으로 설 이전, 설 연휴기간, 설 이후 등 3단계로 나눠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또 연휴기간 이후 환경오염시설의 급작스런 가동에 따른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 환경오염물질 처리에 대해 애로를 겪는 사업장에 대해 기술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 /남원=백선기자 bs8787@